

여·야, 국회 통의통위 '한미정상회담 성과' 논란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 “대통령 성과 재뿌리나”

국회 통의통위의 25일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이태식 주미대사의 대북 제재 관련 발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식'의 세부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 반면, 한나라당은 “알맹이가 없는 정상회담”이라고 일축하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조사부분에 관한 청와대와 주미대사의 브리핑이 서로 다르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식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이태식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에게 BDA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조기에 마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는데 송민

순 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같은 사안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다르다. 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교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실체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직업의교관 출신인 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았던 것 같다. 양국의 언론발표문을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내용이 좋았다”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새로운 뭔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자꾸 억지 회담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北 수해주민 돕기 물품 전달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배기선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의약품과 식료품을 박종화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총재(왼쪽 세번째)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은 “양국 정상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 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또 한미 양국이 미 대통령의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이른바 ‘S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논의의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온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동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이 “노 대통령이 한 일(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나라당이 미국까지 가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정말 한심하다”고 지적하자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정상외교가 절대 선이고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고춧가루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자치낭비’ 언제까지



송기동 사회2부 차장

민선단체장들의 시행착오는 과연 어디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일까. 사회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 하지만 우리 주변엔 ‘자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액자들이 너무 많다.

화순군이 국비 28억원 등 41억원을 들여 개장한 ‘광덕 공용 지하주차장’도 그 한 예다. 일요일인 24일 오전, 136대를 수용할 수 있는 1천379평의 광덕 주차장은 10%에도 못 미치는 11대의 차량 만이 드문드문 주차돼 있었다. 무료 개방에도 하루 이용 차량이 60대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광덕 택지지구 주변의 교통혼잡을 완화한다며 조성한 이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반면 주차장 주변의 이면도로는 주차 차량들로 여전히 혼잡하다.

주변 상인들은 착공 당시 투자에 비해 교통혼잡 개선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라며 공사장 입구를 막으며 반대했으나 굳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다. 더욱이 착공 당시 화순군은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주차 수요 예측 조사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사용 전 시행령의 전횡’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심지어 수년 후 다른 사업을 한다며 다시 뜯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민선자치 들어 화순뿐 아니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행사나 과시성 조형물 등 전시행정이 유독 많아졌다. 과거처럼 단체장 임명제였다면 과연 이들 사업들이 추진됐겠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나주대교에 세워진 폭 8m, 길이 18m의 말 모양 조형물과 순천시 ‘사랑과 야망’ TV 세트장 역시 각각 15억원과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나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막대한 예산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사업 예산낭비를 따지지 않은 채 ‘치적’만 내세워 강행할 때 마땅히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감시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켰다.

다행히 지난 5월 통과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직무상 명백한 잘못이 발생했을 때 임직주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비롯, 주민 예산참여제도 등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오는 10월 25일 화순, 신안에서 군수를 다시 뽑는 선거가 열린다.

다산 정약용은 복민심에서 세금을 ‘백성의 피와 땀’이라고 했다. 단체장을 잘못 뽑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주민들의 ‘피와 땀’을 소중히 여기는 단체장을 선택하는 현명한 선택은 결국 표를 가진 ‘유권자’들의 몫이다.

/song@kwangju.co.kr

“인문학 위기는 미래의 위기”

80개대 학장 성명 “진흥기금·발전추진중 설치” 요구

고려대 교수들이 인문학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전국 인문대 학장들이 ‘인문학진흥기금’ 설치 등 인문학 발전을 위한 대학·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80여개 대학이 참여한 전국인문대학장은 25일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성명을 내고 “오늘날 직면한 인문학의 위기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진정성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자각한다”며 “대학·정부는 시장논리에 영합하지 말고 충실한 인문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주요 국립 및 사립대, 지방의 주요 대학들이 주로 알려졌다.

학장단은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인문학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학장단은 인문학 진흥을 위한 대책으로 ▲인문학 중장기 발전방안을 기획·실현할 기구로 교육부총리 산하에 가상 ‘인문학국위원회’(Humanities Korea)를 설치할 것 ▲전국인문대학장단·교육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인문학발전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 등도 제안했다.

성명은 “인간의 삶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의심을 상실한 채 폭력적인 무한경쟁으로 치달고 있다”며 “인종과 이념 및 종교의 갈등, 생태계 파괴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인문학 경시풍조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학장단은 그러나 “위기상황이야말로 변신과 재도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대학은 근시안적 시장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야 하며 인문학의 상상력과 창조력이야말로 미래의 비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인문대학장단과 학술진흥재단은 25~30일을 ‘인문주간’으로 선포하고 26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개막행사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강석주 연설’ 오보 소동

보도된 연설문 전 미국무부 담당관 ‘가상 작문’ 밝혀져

미 국무부의 한 전직 관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 가상해서 쓴 글이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대대적 오보사태를 불러오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오보 사태의 근원은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담당관이 최근 한반도관련 싱크탱크인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없이 추락하는 토끼’(Rabbit in Free Fall)라는 제목의 에세이. 이 에세이에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시진)이 지난 7월 긴급 해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이 5~6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에 상당수의 중앙 언론사는 25일

자 조간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한 칼린은 글 서두에서 “며칠 전 프라하에서 온 기물종이에 한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강 부상의 연설을 받아 쓴 것”이며 “더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고 밝혔다. 칼린은 국무부 정보조사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없이 추락하는 토끼’(Rabbit in Free Fall)라는 제목의 에세이. 이 에세이에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시진)이 지난 7월 긴급 해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이 5~6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게다가 그 연설 내용을 보면 북한의 핵 능력 및 북미 관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든가, 외무성의 한계

에 대한 자조적인 언급 등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칼린의 글은 허구였음이 확인됐다. 이 글은 애초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브루킹스연구소 등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이다. 칼린은 이날 “(가상 상황을 상정해 칼럼을 자주 쓰는) ‘뉴욕타임스’의 윌리엄 새코이어(77)처럼 김정일의 입장에서 발표해봐라”라는 주최 측의 제안을 받고, 지난 7월 북한이 재외공관장회의를 열었던 상황을 빚대서 “강 부상의 처지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을 그려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군산,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허가

전북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25일 공식 허가했다. 이로써 1년 넘게 계속된 찬반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국방부는 이날부터 즉

각 WISS설치 공사에 착공해 연말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후한 군산발전 위를 위해 국방부가 요청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등 2건을 모두 허가한다”고 밝혔다.

문 시장은 “군산시의 낮은 재정자립도(26%)로는 지역경제회생이 어렵다”면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만큼 군산발전을 앞당기자”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좋은 사람, 좋은 여동 - 선물은 마음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신용 우대상품은 카드 결제 시)

축식인유에 출발할 수 있는 여행지 !!!

지역	주택	민원	미주/대입	유학	민원/어른/취업/반도
<p>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2,500,000 2. 3,000,000 3. 3,500,000 4. 4,000,000 5. 4,500,000 6. 5,000,000 7. 5,500,000 8. 6,000,000 9. 6,500,000 10. 7,000,000 	<p>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6. 3,500,000 7. 4,000,000 8. 4,500,000 9. 5,000,000 10. 5,500,000 	<p>미주/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6. 3,500,000 7. 4,000,000 8. 4,500,000 9. 5,000,000 10. 5,500,000 	<p>유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6. 3,500,000 7. 4,000,000 8. 4,500,000 9. 5,000,000 10. 5,500,000 	<p>민원/어른/취업/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000 2. 1,500,000 3. 2,000,000 4. 2,500,000 5. 3,000,000 6. 3,500,000 7. 4,000,000 8. 4,500,000 9. 5,000,000 10. 5,500,000 	